

AUTHOR 이상규

TITLE 종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IN 월간고신

(10, 1998): 24-29.

종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상 규 교수
고려신학대학교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혹은 종교개혁이 성취한 결과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종교개혁에 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혹은 종교개혁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종교개혁을 로마교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종교개혁은 이단적 열교(裂敎)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흥렬 교수는 그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을 루터의 민족주의에서 기원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렇다면 루터의 신앙교백적 혹은 신학적 동기와 그 활동들은

완전히 무시되고, 그의 개혁활동은 단순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왜곡되고 만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석돼 왔던가를 정리해 됴으로써 종교개혁에 대한 바른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여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개혁에 대한 해석만큼 다양한 해석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16세기 복합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였고, 그 영향 또한 유럽과 다른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개혁을 포함한 모든 역사적 사건은 복합적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뜻하는 '개혁'(Reformation)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이고 추상명사이지만 정관사 더(the)를 붙여 더 레포메이션(The Reformation)이라고 쓰면 16세기의 이 교회개혁 사건을 칭하는 고유명사화 된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교회내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을 어떤 준거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는 종교개혁 해석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 역사가들

개신교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을 대체적으로 교회를 쇠신하시는 하나님의 일, 교회에 대한 섭리적 사건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간주하고, 이 개혁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불가피한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여 개혁의 때가 찼을 때 루터나 칼빈 등과 같은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교회개혁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으로 본다. 이런 개신

교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해석한 첫 인물이 16세기 첫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학자였던 독일의 일리리쿠스 플라치우스(Illyricus Flaccius)였다. 그는 1562-1572년에 쓴 [막덴부르크 세기사](Magdenburg Cenrties)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영국의 교회사가이자 유명한 [순교자열전](The Book of Martyrs)의 저자인 존 폭스(J. Fox)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교회의 역사란 참 교회와 거짓된 무리들 간의 투쟁의 역사로 이해하고 16세기 이후의 역사는 참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적 그리스도인 로마교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보았다. 그는 영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교자들의 역사와 생애를 기술하고, 그들이 잠시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교회사학자인 윌리엄 커닝햄(W. Cunningham) 또한 플라치우스의 견해를 계승한 역사가였다. 그는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보았다.

루터파 계통의 학자들은 개신교 역사가들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대체적으로 개혁에 있어서 루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예컨대, 고든

랍(Gorden Rupp)은 그의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 of God)에서 루터의 회심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강조하고, 개혁의 기원을 루터의 종교적 변화에서 취급하였다. 베인톤(Ronand H. Bainton)은 루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전기적 저술인 《내가 여기 섰나이다》(Here I Stand)에서 루터의 역할의 독특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칼빈주의 계통의 학자인 메릴 다비네(Merle d' Aubigne)는 그의 《16세기 종교개혁사》(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에서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초림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칼빈주의자들(Jean Cardier, Josef Bohatec)도 동일하다. 정리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필요로 하였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것이 종교개혁에 대한 개신교 역사가들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 개혁은 하나님의 교회를 참되고 순수하게 회복하시는 쇄신의 역사였다고 보았다.

천주교의 입장

앞서 언급했듯이 천주교 역사가들은

대체로 중세교회의 무오성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하나의 이단운동 혹은 분리주의 전통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세시대를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였다고 보기 때문에 개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16세기 천주교 역사가였던 바로니우스(Baronius)였다. 그는 1588-1607년 어간에 플라치우스를 반대하고 로마교를 변호하기 위해 쓴 그의 《교회의 연대기》(Annales Ecclesiastici)에서 종교개혁을 분리주의 운동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후일의 종교개혁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에 대한 교과서적 논리가 되었다. 다른 천주교 역사가들은 개혁자들의 개혁은 '종교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측면, 곧 민족주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개혁에 있어서의 종교적 의미를 약화시키든가 왜곡시키고 있다. 설사 중세시대의 부패를 인정하는 역사가들도 '개혁'(Reform)은 필요했으나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발전된 것은 잘못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개신교운동에 반대하여 일어난 천주교의 응전을 우리는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는 이런 표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천주교 자체의 개혁을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여 일어난 방이 적, 부정적 운동으로 규정짓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는 종교개혁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은 이단적 분리운동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George Tavard, Protestantism, 1919), 자넬(Pierre Janeile, Reformation, 1957) 그리고 로쯔(Joseph Lortz) 등 천주교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로쯔는 1887년에 쓴 "루터의 종교개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간주하고,

이 개혁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불가피한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여 개혁의 때가 왔을 때 루터나 칼빈

등과 같은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교회개혁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으로 본다

종교개혁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19세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미국 루이즈빌 지방 주교였던 마틴 스팔딩(Martin Spalding)은 개혁주의 사가인 메릴 다비네의 종교개혁사에 답하는 글인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사》(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1860)에서 종교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비판하였다(제1권, 102-109).

그 외에도 윌리엄슨(H. R. Williamson)은 그의 《영국종교개혁의 시작》(The Beginnings of the England Reformation, 1957)에서 종교개혁은 탐심에서 기원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입장이 타바드

혁은 왜 일어났는가?에서 종교개혁은 "서방 기독교의 연합을 파괴하였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불만의 표시였다"고 말하므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였다. 천주교 성직자로서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하트만 그리자(Hartman Grisar)는 그의 방대한 저술에서 루터의 성장기와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을 루터의 심리적 이상징후에서 찾았다. 즉 자기 도취증, 신경질적인 불안정한 감정상태가 그로 하여금 당시 교회에 불만을 갖게 하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열교행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심지어 루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였

던 루터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데비플(Heinrich Denifle)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결국 천주교는 종교개혁 자체를 무의미한 열교행위로 간주한다.

세속적 해석

종교개혁을 종교적인 배경에서 보지 않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동기에서 보는 세속적 해석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발생, 중산층의 형성 혹은 인쇄술의 발명, 광업, 조선술 등 기술의 혁명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종교개혁의 동기를 본다.

예컨대, 스미스(Preserved Smith)는 그의 [종교개혁의 시대](Age of Reformation, 1920)에서 종교개혁은 국가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사학자 프리스터(Eva Priester)는 종교개혁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종교적인 동인에서 보지 않았다. 한편 편 겔더(H. A. E. van Gelder)는 그의 저서 (The Two Reformations of the 16th. Century, 1961)에서 참된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전통을 계승한 계몽주의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에 대한 일반 학자들의 해석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자 에릭슨(Erik Erikson)의 해석이다. 그는 그의 청년루터(Young Martin Luther, 1958)에서 심리학적 관찰방법 사용하여 루터의 정신,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소위 정신분석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모색하였다. 그는 루터가 수도원 입단에서 시편강의 시(1516) 겪은 동일성의 위기를 중심으로 루터의 심리변화를 분석하고, 루터가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결론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였다.

지성사가인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종교개혁을 이태리 문예부흥의 종교적 표현이며, 독일 인문주의 사상과 루터의 종교개혁이 상호협력하여 중세 스콜라주의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이상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또 트릴취(Ernst Troeltsch, 1865-1923)는 종교개혁을 그 성격상 현대적이기 보다는 중세기에 가깝다고 보며, 현재적이라기 보다는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이라고 보았고, 물질적이라기 보다는 영적이라고 보았다. 이런 트릴취와 다른 견해를보인 학자가 천주교 학자이

자 추기경인 리아(Henry Charles Lea)였다. 그는 종교개혁의 근본 동기는 영적이라기 보다는 세속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이 현대시민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열교행위로 간주하였고, 세속적 해석은 개혁의 동기나 과정 결과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고 진정한 동기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종교적 요인이었고, 개혁자들의 개혁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종교적 동인

지상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인 흑암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쇠신하는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개혁(Reform)인 동시에 영적 부흥(Revival)이었다

이상의 세속적인 해석들은 종교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종교개혁의 원인이나 과정, 결과 등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치 못하다. 예컨대 종교개혁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종교개혁의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해석은 자칫 종교개혁의 의미를 약화시키든가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

곧, 바른 교회의 회복이었다. 그 이외의 요인들은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요인이었을 뿐이다. 지상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인 흑암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쇠신하는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개혁(Reform)인 동시에 영적 부흥(Revival)이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대한 개신교적 입장이다. **교신**

바로 잡습니다

9월호 21쪽 좌측 맨 이렛줄의 "95%"는 "5%"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주교의 해석은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하고,